

무안박씨 요여의 보존처리

홍성효, 이수희, 김철웅
한국전통문화학교 보존과학과

Conservation of yoyeo(腰輿) of the Muan Park,s family

Sung-Hyo Hong, Su-Hee Yi and Chul-Woong Kim

*Department of Conservation Scienc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430
Hapjung-ri Kyuam myeon, Buyeogun 323-812, Korea.*

충남 민속자료 제20호로 지정된 '무안박씨 요여(腰輿)'는 성삼문 선생의 신주 이안(神主 移安)에 사용됐던 역사적 의의를 간직하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 보존 관리되고 있다. 요여는 조선시대 명문가(名文家)의 전통 상례(喪禮)시에 시체를 매장한 뒤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돌아오는 목재로 만든 작은 가마이다. 요여 같은 목가구는 기온과 습도의 차이, 취급 부주의 등으로 손상되기 쉬워 자칫 수리가 지나치거나 미흡하여 변형되기가 쉽다.

본 보존처리과정에서는 부식되거나 파손되어 재사용할 수 없는 부재는 가급적 동종 목재를 최대한 사용하였으며 짜임이나 이음에 사용된 쇠못은 부식으로 인하여 주변 나무재질에 영향을 주므로 최우선적으로 제거하여 수용성 접착제인 아교로 처리하고 부득이 견고하게 처리되어야 할 부분은 동못으로 고정시켜 주었다. 경첩, 감잡이, 고리 등 장식이 파손되거나 결손된 것은 동판으로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또한 처리 전 유물상태와 처리과정 및 처리완료 후의 사진과 기록을 남겨 복원 후 원상과 대조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보존처리과정은 부재분리, 손상된 부재를 만드는 재가공 단계, 클리닝, 재조립 및 색맞춤 등의 5단계로 나누어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분리과정에서는 먼저 요여의 각 부재별 상태를 관찰하고 이를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원형 복제 등을 고려해 CAD를 이용해 구조 및 크기를 사전에 실측 기록하였다. 본 요여는 상태관찰에서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요여의

각 부재들이 물리적으로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상여의 연초대처럼 요여를 지탱하는 아래 막대 중 하나가 반으로 파손되어 운반지지대의 역할을 상실했으며 앞면 여단이 문 창살의 상당부분이 부서진 상태였다. 또한 몸체와 지붕의 연결 부위를 비롯해 각 이음새의 구성부재들이 훼손되거나 부식되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둘째 각종 유충 및 애벌레에 의해 몸체 내부를 비롯해 버팀목 등이 심각하게 생물학적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수차례에 걸친 보수작업으로 인해 연결부위가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 최근의 긴 쇠못을 사용해 오랜 나무부재를 이어 놓은 것이 결과적으로 목재의 내부를 균열시키고 못의 부식 등으로 인해 미관을 흉하게 만든 원인이 되고 말았다. 분리과정에서는 최근의 보수작업에서 사용한 쇠못 등을 부재로부터 상당수 제거하였다. 그리고 피해 등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먼저 지지대 몸체 지붕 세부분으로 분리한 후 그 중 손상정도가 심한 부위를 다시 재분리하고 부위별로 고유번호를 매겨 놓았다. 그밖에 부재 연결이음새로 쓰인 장식 중 부식이 심해 이음새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장식은 분리해 따로 보관하고 그 자리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장식을 제작해서 이음새로 덧붙였다.

두 번째 재가공 단계에서는 먼저 분리한 부재를 훼손상태에 따라 교체부재와 보강부재로 나누었다. 교체부재는 동일부재 사용을 원칙으로 (동일부재가 없는 경우 오동나무 사용) 같은 치수로 제작하고 보강부재는 훼손부위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아교 등을 사용해 동일목재를 덧대거나 접착하였다. 이같이 보강부재는 요여가 가진 원형을 가급적 훼손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보수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세 번째 클리닝 작업에서는 분리한 각 부재를 1차적으로 솔과 브러시 등으로 묶은 때를 벗겨내고 제거되지 않는 때는 목재의 상태에 따라 전동브러시 혹은 에어 콤프레셔 등을 이용해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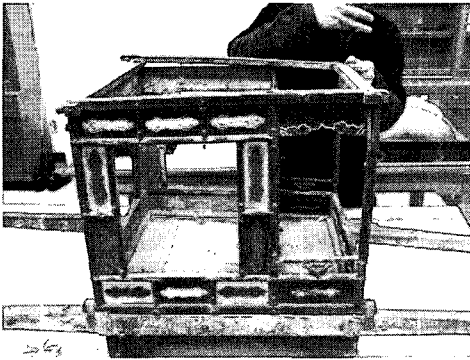
네 번째 재조립 과정에서는 교체부재 및 보강부재를 아교 및 동못을 사용해 짜맞추고 분리 이전상태로 조립하였다. 조립과정에서 짜임이나 이음에 사용된 쇠못은 부식으로 인하여 주변 나무재질에 영향을 주므로 최우선적으로 제거하였으며 부득이 견고하게 고정될 부분은 동못으로 고정시켰다.

마지막으로 덧붙인 교체부재 및 보강부재 그리고 이음새로 쓰인 교체장식 등의 색을 주변색과 맞추어 주었다. 색 맞춤을 할 때는 주변색과 어울리면서도 사후 보존처리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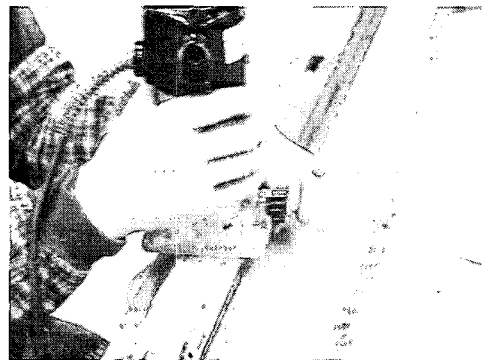
요여의 수종분석 결과와 보존처리에 사용된 대체수종은 [표 1]과 같다.

요여세부명칭	보존처리 전 수종	보존처리 대체 수종
보주	잇갈나무	잇갈나무
보주(내부)	등나무	등나무
몸체(뼈대)	문살나무	문살나무
몸체	버드나무	버드나무
창살	버드나무	오동나무
바닥	오동나무	오동나무
기둥(왼쪽)	참죽나무	오동나무
기둥(오른쪽)	버드나무	오동나무
들대	참나무	참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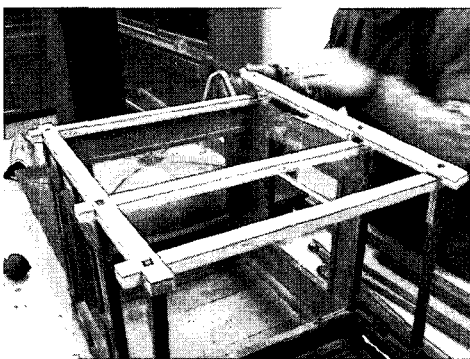
[표 1] 요여의 수종분석 결과



[그림 1] 몸체 분리과정



[그림 2] 부재 보강작업



[그림 3] 몸체지붕이음새 보강작업



[그림 4] 훼손부위 보수작업